

■ 식인종 선언

이 글은 1928년 브라질의 시인 오스왈드 지 안드라지(Oswald de Andrade)가 발표한 식인종 선언(Manifesto Antropófago)을 번역한 것이다. 이 선언문은 브라질의 모더니즘, 이른바 ‘트로피컬 모더니즘’을 정초한 역사적인 문건으로 1920년대 이후 브라질의 문예운동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Revista de Antropofagia*, Sao Paulo, 1(1), May 1928. 각주는 모두 역자주이다.

오직 식인풍습만이 우리를 단결시킨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다. 모든 개인주의, 모든 집단주의, 모든 종교, 모든 평화조약이 숨어있는 표현.

투피냐 투피가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모든 교리문답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라쿠스의 어머니¹⁾에게도 반대한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에만 신경을 쓴다. 남자들의 법칙. 식인종의 법칙.

1)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 코르넬리아(Cornelia)를 지칭한다. 코르넬리아는 남편이 죽은 뒤 정절을 지켰고, 자식 교육에 전념하여 훌륭한 정치가로 키웠다. 여기서는 가부장제 가족의 모범적 여성이란 뜻으로 사용한 것 같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여성으로 플루타코의 『영웅전』 에도, 단테의 『신곡』 에도 언급된다.

우리 모두는 드라마에서 보는 미심쩍은 가톨릭교도 남편들에 지쳤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비밀을 풀었고, 여타 최근 심리 관찰자들을 파헤쳤다.

진리를 압도하는 것은 옷이다. 옷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투과할 수 없는 층이다. 옷을 입은 인간들에 대한 저항. 미국 영화는 이를 잘 웅변한다.

태양의 아들들, 생명체들의 어머니. 서로를 위하는 척하면서 거칠게 만났고 사랑했다. 이민자로, 교환품으로, 여행자로. 거대한 코브라의 나라에서.

그 까닭은 우리가 한 번도 문법책 또는 옛날 채소의 표본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도심과 변두리, 나라와 대륙을 구분할 줄 몰랐다. 브라질의 세계지도 앞에서 게으름 핀다.

참여하는 의식(意識) 하나, 종교적 리듬 하나.

통조림한 양심을 수입하는 자들에 반대한다.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존재를 위하여. 그리고 레비브뤼엘²⁾은 논리 이전의 심성을 연구하도록 하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카리바³⁾ 혁명.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거대

2) 레비브뤼엘(Lucien Lévy-Bruhl, 1857~1939)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인류학자 및 사회학자. 상이한 문화의 사고체계는 서로 화해하기 어려우므로 절대적 윤리를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원래 남미 오리노코 지대에 살다가 카리브 해로 이주한 원주민 종족으로 식인종

하다. 인간을 위한 모든 효율적인 혁명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없었더라면 유럽은 그 하잘 것 없는 인권선언조차 하지 못했으리라.

아메리카가 선포한 황금시대. 황금시대. 그리고 모든 젊은 아가씨들.

친자 확인. 브라질 카리바 인디언과의 접촉. 빌게농⁴⁾이 땅(terre)이라고 적은 곳. 몽테뉴, 자연인. 루소. 프랑스혁명에서 낭만주의까지, 볼셰비키 혁명까지, 초현실주의 혁명까지, 그리고 키슬링의 기술적 야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우리는 결코 교리문답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반쯤 졸면서 살 권리를 갖고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이아, 아니면 벨렝두 파타에서 태어나게 했다.

우리는 스스로 논리의 탄생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비에이라 신부⁵⁾에 반대한다. 커미션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처음 대출을 해 주었던 자. 글자를 모르는 왕은 그에게 말했다. 이 걸 종이에 적어 두라. 너무 장황하게 기록하진 말고. 그래서 용자가 이뤄졌다. 브라질 설탕이 그 배경이다. 비에이라 신부는 돈을 포르투갈에 남겨두고, 우리에게선 종이의 사연만 남겼다.

의 대명사처럼 사용된다. 영어로는 'carib'라고 한다.

4) 빌게농(Nicolas Durand de Villegaignon, 1510~1571): 프랑스의 해군장교이자 탐험가로 브라질에 위그노 식민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5) 비에이라(Antônio Vieira, 1608~1697): 포르투갈의 예수회 신부로 브라질에서 원주민과 흑인노예 선교에 힘썼다. 그는 식민주의자들의 노예사냥과 과도한 착취에 반대하여 왕권의 도움을 얻어 이들을 보호하였다. 포르투갈의 상업을 진흥하기 위한 무역회사의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928년 브라질 화가 타르실라 두 아마라우(Tarsila do Amaral)가 당시 남편이던 오스왈드 지 안드라지에게 생일 선물로 그려준 작품 <식인>(Abaporu). 안드라지는 '식인종 선언'에 이 그림을 삽입했다.

영혼은 육체가 없는 영혼을 생각하길 거부한다. 인간의 얼굴은 하느님의 형상이다(O Anthropomorfismo). 식인종 백신을 맞아

야 한다. 추운 지방의 종교들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외부에서 자행되는 종교재판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귀로 듣는 세계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

우리는 복수를 올바르게 새겨 넣었다. 마법이란 코드화된 과학. 식민주의. 타부를 토tem으로 영원히 전환하기 위함이다.

되돌릴 수 있는 세계와 객관화된 이념에 반대한다. 시체로 된 것들. 동태적인 사고의 정지. 개인은 시스템의 희생물. 고전적 불의의 기원. 낭만적 불의의 기원. 그리고 내적 정복의 망각.

해로(海路)들, 해로들, 해로들, 해로들, 해로들, 해로들, 해로들, 해로들,

카리바 족의 본능

가설들의 죽음과 삶. 내가 우주로부터 나왔다는 방정식에서 우주가 내게서 나왔다는 공리로. 생존. 지식. 식인풍습.

식물 같은 엘리트에 대항하고. 고독과 친교를 하면서.

우리는 결코 교리문답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식인잔치를 했다. 제국의 상원의원처럼 차려 입은 인디언. 피트(Pitt)⁶⁾의 배역을 하면서. 또는 선한 포르투갈인의 감정이 충만한 알렝카르의

6)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흔히 '소 피트'라 부르며 1783~1801년, 1804~1806년 두 차례 걸쳐 대영제국의 수상을 지냈다.

오페라를 주목한다.

우리는 이미 공산체제를 가졌다. 우리는 이미 초현실주의 언어를 가졌다. 황금시대.

카티티 카티티(Catiti Catiti)
 이마라 노티아(Imara Notia)
 노티아 이마라(Notia Imara)
 이페주⁷⁾ (Ipeju)

마법과 삶. 우리는 화덕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 재화, 도덕적 재화, 그리고 존엄성이라 재화를 나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문법 형식의 도움으로 미스터리와 죽음을 이동시킬 줄 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범람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대답하길 범람이란 가능성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했다. 그 사람 이름은 갈리 마티아스였다. 나는 그를 먹어 치웠다.

미스터리가 있는 곳에서는 결정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케이프 피니스테르(Cape Finisterre)⁸⁾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대한다. 달력이 없는 세계.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세계. 나폴레옹이 없는 세계. 시저가 없는 세계.

7) “새로운 달, 오 새로운 달이여, 내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 속으로 들어올지니.” 코우투 지 마갈랑이스(Couto de Magalhaes), 『야만인 O selvagem』에서

8) 포르투갈의 지명으로 피니스테르는 ‘땅 끝’이란 말이다.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출항한 항구를 이른다.

카탈로그와 TV 세트에 고정된 진보, 오직 기계들, 그리고 혈액 수혈기들.

범선에 실려 온 적대적 승화에 반대한다.

‘카이로의 자작’이라 불린 한 식인종의 지혜가 규정한, 선교하는 사람들의 진실에 반대한다 — 그 진실은 여러 차례 반복된 거짓말이다.

십자군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먹어치우고 있는 문명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지 거북이처럼 강하고 복수를 일삼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되지 않은 우주의 의식이라면, 과라시(Guaraci)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이다. 자시(Jaci)는 모든 식물들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사변적이지 않다. 그리는 계시를 받았다. 우리의 정치는 분배의 과학이고 지구적 사회 시스템이다.

이주. 지겨운 상태에서 도망치는 것. 도시의 경화에 반대하는 것. 온실과 사변적 지겨움에 대해 반대하는 것.

윌리엄 제임스⁹⁾에서 보론오프¹⁰⁾에 이르기까지. 금기를 토tem으

9)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미국의 심리학자. 실용주의의 심리학적, 철학적 기초를 정초하였다.

10) 보론오프(Serge Voronoff, 1866~1951): 러시아계 프랑스 의사로 원숭이 고환의

로 변환하기. 식인풍습.

가부장제 가족과 황새 우화의 창조: 사물에 대한 진정한 무지 + 상상력의 부재, + 호기심 많은 자손들 앞에서 위압하는 태도.

우리가 하느님의 관념에 도달하려면 심오한 무신론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카리바족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그들에겐 과라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된 대상은 타락한 천사처럼 대응한다. 그 뒤로 모세는 방황하고 있다.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두 명의 포르투갈인 브라질을 발견하기 전에 브라질은 이미 행복을 발견했다.

햇불을 든 인디언에 반대한다. 마리아의 인디언 아들, 카트린느 드 메디치의 손자, 그리고 돈 안토니우 지 마리지의 양자에 반대한다.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이다.

핀도라마¹¹⁾의 모계가족제를 반대한다.

습관의 뿌리인 기억에 반대하며. 새롭게 가공된 개인의 경험.

우리는 구체주의자들이다. 이념은 자리를 취하고, 반응하고,

세포조직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로 명성을 날렸다.

11) 상파울루 주의 한 군 이름.

광장에서 사람을 불태운다. 사상과 여타 종류의 마비 증상을 억누르자. 루트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죄가 있고, 도구가 있고, 별이 있음을 믿기 위하여.

괴테에게, 그라쿠스 형제의 모친에게, 그리고 동 주앙 6세의 궁정에도 반대한다.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이다.

비창조물과 피조물이라 불리는 것 사이의 투쟁 - 인간과 타부 사이의 영원한 모순이 이를 설명한다. 나날의 사랑과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식인풍습. 성스런 적의 흡수. 그 적을 토tem으로 변형시키기. 인간의 모험. 이 땅의 목적. 오직 순수한 엘리트만이 내적으로, 지고의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을 먹는 식인풍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프로이트가 확인한 모든 악행들, 교리문답의 악행들을 피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적 본능의 승화가 아니다. 그것은 식인풍습적 본능을 온도계로 측정하는 눈금자이다. 살을 먹으면 누군가를 선택하고, 우정이 생긴다. 애정이 생기면 사랑. 사변적이면 과학이 된다. 일탈하고 스스로 이동한다. 우리는 악당이 된다. 교리문답의 죄악-시기, 폭리, 증상 또는 살인-에 통합된 저열한 식인풍습. 소위 문명화되고 기독교화된 국민의 역병,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 식인종들.

이라세마¹²⁾의 땅에서 1만 1천 처녀들이 노래한 안쉬에타¹³⁾에

12) 이라세마(Iracema): 1865년에 출간된 주제 지 알렝카르(José de Alencar)의 소설 제목이자 여주인공. 세아라 주를 배경으로 타바라자 원주민 여성인 이라세마는 포르투갈 식민자 마르칭(Martim)과 사랑을 하며 순수 브라질인을 탄생시킨다. 이라세마는 자연과 순수무구함의 상징이고, 마르칭은 문명과 지식의 상징으로 브라

반대하여 — 상파울루의 건설자 가부장 주앙 라말류(João Ramalho).

우리들은 결코 독립을 선언한 적이 없다. 동주앙 6세가 말한 판에 박힌 구절 - 내 아들이, 다른 모험자가 왕관을 차지하기 전에 네가 먼저 쓰라! 우리는 왕정을 밀어냈다. 우리는 브라간사 가문의 정신도, 마리아 다 폰치¹⁴⁾의 칙령과 차가운 태도도 제거해야만 한다.

프로이트가 정의한 바, 제복을 입은, 억압적인 사회적 현실에 반대한다. 콤플렉스 없는 현실, 광증이 없는 현실, 매춘도 없는 현실, 그리고 핀도라마의 모계가장제란 감옥이 없는 현실에 반대한다.

오스왈드 지 안드라지.

피라팅가에서.

주교 사르디냐¹⁵⁾가 잡아 먹힌 지 374년

[번역: 이성형]

질은 바로 메스티소화의 산물이다.

13) 안쉬에타(José de Anchieta, 1534~1597): 브라질의 예수회 사제, 시인. 역주.

14) 폰치(Maria de Fonte): 1846년 포르투갈의 민란에서 초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여성 지도자.

15) 1556년에 브라질 북서해안에 표류한 주교 사르디냐(Pero Sardinha)는 카에테 인디언들에게 잡아 먹혔다.